

IPA, LG화학 인상으로 “고공행진”

해외 Supplier 공급 줄어 ... 프로필렌 가격강세로 추가인상 예고

4월 IPA(Isopropyl Alcohol) 가격이 경인지역 도착도 kg당 1050-950원으로 LG화학의 IPA 수입제품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IPA 시장 관계자는 “LG화학이 프로필렌(Propylene) 가격인상분을 IPA 가격에 곧바로 반영시키고 있어 가격이 kg당 1000원 이상에 거래되는 반면 수입제품은 오퍼시기에 따른 가격인상 반영시점 차이로 가격차이가 다소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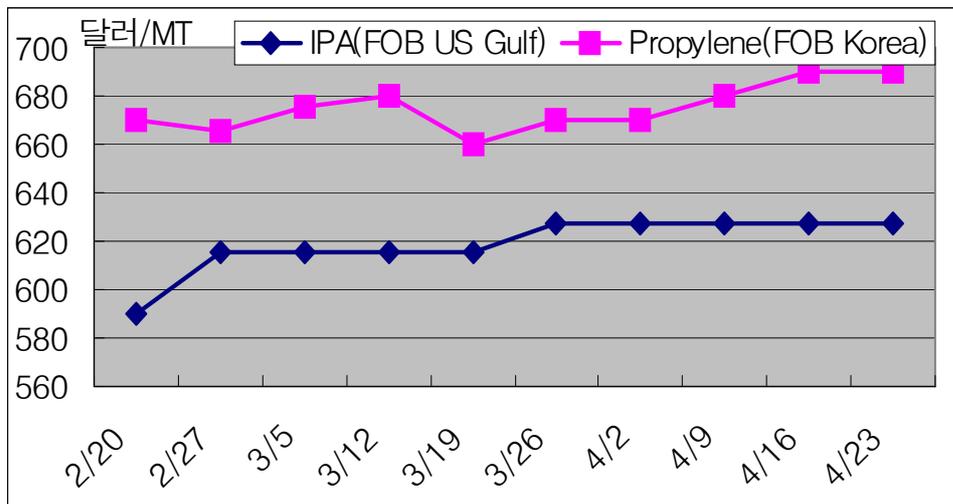
IPA는 3월 Shell이 Allocation을 선언과 함께 Cargo가 늦어지면서 공급이 타이트해졌으며, 소량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Dow Chemicals도 3월에 IPA를 공급하지 못했다.

IPA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Supplier들이 미국의 프로필렌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가로 공급되는 한국시장의 IPA 공급량을 줄이고 있다.

LG화학의 IPA 가격인상은 원재료 가격인상에 따른 것으로 프로필렌이 PP(Polypropylene)의 수요증가에 따라 4월 FOB Korea 톤당 683달러로 2003년 4/4분기보다 26.6% 상승했기 때문이다.

IPA 시장 관계자는 “1/4분기에 폭등했던 프로필렌의 가격상승분을 IPA에 전가시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당분간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IPA 가격추이(2004)



IPA 시장점유율은 2002년 기준 LG화학 40%, Shell 28%, Exxon 8%, Condea 4%, 기타 20%에서 2004년에는 해외 Supplier들의 정책변화로 시장점유율이 다소 변동된 것으로 파악된다.

IPA는 2003년 하반기에는 내수경기 침체로 가격인상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해 가격인상에 번번이 실패했으나 2004년 원재료의 가격폭등과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무난히 인상되고 있다. <김동민 조사기자>

<화학저널 2004/05/06>